

이춘선 교지(홍패)

이춘선이 광서 14년(1888)에 무과(武科)의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받은 합격증서이다. 왕에 의해 발급되었으므로 교지(教旨)라고 하였으며, 붉은 바탕이었으므로 홍패(紅牌)라고도 한다.

Contents 2015 여름 20호

02	기획특집	2015년도 상반기 기획전시 기증유물展 - 기증·기탁 유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군 人物 이야기
06	재단포커스1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3점 도(道)문화재 등록신청
08	재단포커스2	동학농민혁명 정기심포지엄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등재
10	녹두칼럼	서소문 역사공원 중심에 '동학농민혁명사'가 있다 - 명지전문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채길순
12	인터뷰 ① 발굴! 참여자유족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사발통문 거사계획에 참여하다 - 참여자 황홍모의 증손 황창호
14	인터뷰 ② 동행공감	한옥마을의 명물,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 -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 관장 이윤영



18	인물열전	보기 드문 '평민 지도자' 차치구(車致九)
20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3
24	건강과 생활	소화불량에는 소화제가 최고?
26	기념재단 사발통문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29	네트워크 소식	전봉준 장군 순국 제120주기 추모제 外
34	알려드립니다	웹진 '녹두꽃' 독자원고 모집안내 外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5년 여름호(20호)

발행일 2015년 06월 30일 발행인 김대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제작 한솔디자인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증·기탁 유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군

人物 이야기

오랜 세월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밝히는 다양한 방법 중 한 가지는 선대가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기록한 유물을 발굴하고, 이로서 얻어낸 축적물을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때문에 유물의 발굴은 역사를 밝히는 일에 기본이 되고 동시에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이러한 이유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개관 1년 전인 2003년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밝히기 위한 유물을 수집 해오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유물구입과 개인 및 단체 등이 소장해오던 유물의 기증·기탁이 주를 이루며, 2015년 현재 소장 유물의 총 수량은 5,331 여점이다. 입수된 유물은 그것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소장·관리하고 있으며, 유물의 형태로 보았을 때 지류(紙類)와 서적류(書籍類)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물의 내용으로 보면 동학농민군의 반대편에 섰던 유학자, 양반, 관변(官邊) 측 등의 기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1894년 당시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 동학농민혁명군은 호된 탄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물건 등을 전부 감추고 없애는 과정에서 중요한 유물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로 인해 동학농민혁명군 측의 입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규명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 관련 유물을 발굴해내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 관련 유족과 단체 등의 기증·기탁은 동학농민혁명을 뚜렷이 밝히는 일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유물의 기증·기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밝히고, 많은 이들과의 공유를 선택한 분들의 뜻을 전시를 통해 알리고, 유물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동학농민혁명군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기증·기탁 유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군 人物 이야기'라는 주제의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전시 소개

전시는 총 여섯 개의 파트로 구분되어있다. 첫 번째 파트는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주도한 전봉준'이라는 소주제로 올 2월에 송중수 씨가 기탁한 사발통문 서명자 속에 드러난 전봉준 장군의 지도자적 면모를 새롭게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로 교과서를 비롯해 일반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 유물이며, 20명의 서명자가 등장한다. 전시를 통해 20명의 인물 가운데 사발통문 작성지를 제공한 송두호의 교장 임명장과 그의 아들 송대홍의 대접주 임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파트는 '전라도 남원의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김흥기와 유태홍'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전시된 유물은 유족 김동규 씨가 기증한 것으로 전라도 남원의 동학농민혁명을 소상히 알 수 있어 주목된다. 순교약력(殉敎一畧歷)과 종리원사부동학사(宗理院附東學史)가 그것이며, 유물 속에 나타난 전라도 남원의 토착세력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김흥기 집주와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린 후에도 민족정신으로 널리 계승하였던 유태홍 집주를 소개한다.

세 번째 파트는 유족 이철규 씨가 기증한 유물로 구성하였다. '동학농민혁명군과 뜻을 함께한 무관 이춘선'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해야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인전투 후 입암산성에 은신하고자 하였던 전봉준과 그 일행을 숨겨주었던 일화를 갖고 있는 무관 이춘선과 관련 유물을 소개한다.

네 번째 파트의 주제는 '대둔산 최후 항진지와 김석순 집주'이다. 이 파트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전투로 알려진 대둔산 전적지에서 지난 1999년 원광대학교 사학과 팀이 수습한 탄두와 탄피, 사발 등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 대둔산 전투는 1895년 2월 18일(양력)에 동학농민혁명군이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에 맞서 치른 전투이며, 주요 인물로는 마지막까지 일본군에 항복하지 않고, 1살짜리 여아와 함께 천길 벼랑길을 택했던 김석순 집주가 있어 전시를 통해 소개한다.

다섯 번째는 동학농민군이 직접 사용하였던 유물을 만나볼 수 있는 파트로 주제는 '김제와 장흥의 동학농민혁명군 황종모와 윤주은'이다.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군이 직접 사용한 무기 등 유물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지만, 동학농민혁명군 황종모의 창과 윤주은의 호패는 유족이 직접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유물을 통해 그들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광사호 씨가 기증한 유물로 구성하였으며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계속된 천도교 활동 광윤중'이다. 이 파트에서는 1905년에 동학에서 천도교로 개칭한 후에도 활동을 이어간 광윤중 일가에 대해 조명하였으며, 천도교 활동으로 발생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중한 유물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기증·기탁 해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향후 기증·기탁 문화가 보다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

소중한 유물을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적절한 보존처리를 통해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기증·기탁에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기획전은 2015년 5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람 가능하며, 유물의 기증·기탁 및 관람 관련 문의사항은 063-536-1894로 연락바랍니다.





사발통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3점 도(道)문화재 등록신청

[사발통문(沙鉢通文)]

도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중 「사발통문(沙鉢通文)」은 동학농민혁명군이 남긴 유일한 자료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사료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사발통문은 1968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송두호씨의 집 마루 밑에 70여 년 동안 묻혀 있던 족보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발통문과 일괄문서 4점, 흥선대원군효유문, 양호전기 등 3건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읍시를 경유해 전라북도에 제출했다.

통문은 사발통문 서명자 중 한사람인 송국섭의 손자 송중수씨가 보관해 오다가 2015년 2월에 송두호 교장 임명장, 송대화 대접주 임명장, 이왈수 별교장 임명장, (정유삼월)교장임명장 등 보관해오던 유물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탁해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흥선대원군효유문(興宣大院君曉諭文)] 「흥선대원군효유문(興宣大院君曉諭文)」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재봉기를 준비할 당시 흥선대원군이 이들에게 내려 보내 해산할 것을 종용한 문서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이 효유문과 함께 전봉준, 김개남 장군 등 동학농민혁명군 지도부에게 밀사를 보내 간신과 일본군을 치고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의 밀지를 전달해 재봉기를 유도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흥선대원군 효유문은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다.

[양호전기(兩湖電記)]

『양호전기(兩湖電記)』는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에 대한 조선정부 토벌군의 책임자인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이 1894년 4월 3일부터 1894년 5월 28일까지 고종을 비롯하여 조선 정부의 각 기관과 주고받은 전보를 낱짜 순서로 수록해 놓은 기록

으로,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혁명군과 완산칠봉에 주둔한 진압군의 공방전과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양호전기는 필사본 형태로 현재 2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한 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다른 한 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전라북도유형문화재로 신청하게 되었다. 양호전기는 2014년 홍계훈의 후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없었다. 재단에서는 금번에 신청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흥선대원군효유문



양호전기

명칭	수량	형태	크기	작성 시기
사발통문	1	고문서	420×300 mm	1893년
송두호 교장 임명장	1	고문서	360×270 mm	1891년 11월
송대화 대접주 임명장	1	고문서	390×260 mm	1894년 9월
이왈수 별교장 임명장	1	고문서	170×200 mm	
교장 임명장(정유 삼월)	1	고문서	200×200 mm	1897년 3월

명칭	수량	형태	크기	작성 시기
흥선대원군 효유문	1	고문서	1,190×270 mm	1894년

명칭	수량	형태	크기	작성 시기
양호전기	1	서적	210×330 mm(36장)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정기심포지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후원하는 ‘동학농민혁명 정기심포지엄’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등재를 주제로 6월 10일(수)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해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목표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일(화)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되며, 이번 학술대회는 민주·평등·평화·인권·박애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위상을 찾기 위한 시동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심포지엄 제1부는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평가와 정의」 발표와 이혜준 공주대 교수, 허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의 토론, 왕현중 연세대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대상과 자료현황」 발표와 윤석산 한양대 명예교수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휴식 이후 제2부에서는 안종철 전 광주민주화운동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의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고찰」 발표와 이에 대한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토론, 그리고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전략」 발표와 김귀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부의장,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모든 발표와 토론이 종료된 이후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가 진행하는 종합토론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대상과 범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전략 그리고 현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있는 5·18광주민주항쟁의 기록물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질적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어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지표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학술연구분과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을 기반으로 세계기록유산신청서를 작성한 뒤,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청내용을 의결해 2015년 8월 말까지 문화재청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추진위원회와 함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소문 역사공원 중심에 '동학농민혁명사'가 있다

서울 서소문 밖에 '서소문 역사공원'이 계획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서소문 밖은 어떤 곳이며, '서소문 역사공원'에 무엇을 담아야할까? 조선 500년 역사에서 조선 후기는 개혁과 변혁의 기운이 강하게 일어났던 시기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봉건지배 계층의 무능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 농촌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절망의 시기에 국토를 일구고, 침체된 생산력을 높인 것은 직접 생산을 담당했던 민중이었다. 농업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공업 광업이 발달

했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했다. 이런 상공업 인구 증가와 경제력 향상은 조선 후기 사회 계급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계층으로 서민지주, 부농, 반실업인 빈농, 독점상인인 도고(都賈), 소상인, 수공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등장했다.

이 시기에 평등과 개혁을 앞세운 동학이 등장했고, 천주교가 유입되면서 민중들의 사회 구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봉건 지배층의 지배질서가 민중세력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을 때 일본 및 서구 열강의 침략 위협도 함께 닥쳤다. 1860년 영국과 프랑스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어 동양의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한반도 개방을 압박하여 후기 조선은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최제우가 민족 민중 종교인 동학을 창도하게 된다. 이에 위협을 느낀 보수 반동 지

배 계층은 사회 개혁은커녕 개혁주의자나 인간 평등을 내세운 동학교도와 천주교도를 처형하는데 급급했다. 이들은 서소문 및 서소문 밖에 감옥과 처형장이 있어서 민중들을 가두고 목을 쳐서 서소문밖 저잣거리에 머리를 내걸어 민중들을 겁박했다.

이런 조선후기 반봉건 개혁운동의 중심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사가 있었다. 정월 고부에서 탐관오리 조병갑의 폭정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봉기의 횃불을 올렸고, 동학농민군은 3월 무장에서 기포하여 과족지세

로 전주성을 함락하는 등 호남지역을 석권한다. 그러나 부패한 정권이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여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동학지도부는 할 수 없이 전주화약을 맺는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이 경북공 침탈로 조선 침략 야욕을 드러내자 동학지도부

는 9월에 재기포를 선언하여 조선팔도의 동학농민군이 일제히 일어나 동학농민혁명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학교도의 머리가 서소문 밖에 내걸렸다. 1871년 영해에서 교조신원운동을 벌였던 이 필제가 군기시 앞길에서 모반대역부도죄로 능지처사되었고, 함께 체포된 정기현, 정옥현도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형에 처해졌다.

1894년 6, 7월에 서울 도성 안에서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임금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경성습격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주모자 24명에 대한 재판이 1895년에 4월 19일에 있었



는데, 박준양을 비롯한 5명의 동학당 주동자들이 처형되어 서소문 밖에 효시되고 나머지는 유배형을 받았다.

12월에는 호남의 동학지도자 김개남, 황해도의 성재식, 경기 수원지역의 안교선, 최재호가 서울로 압송 처형되어 서소문 밖 저잣거리에 효시 되었다. '고종실록'에 네 지도자의 머리를 서소문 밖에다 경계하라는 기록이 전해졌고, 영국의 여행가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 '동학의 지도자들 효시'에 대한 목격담이 기록되었다. 효시된 모습을 두 일본인 기자가 사진 촬영했고, '동학수괴 실견(東學首魁 實見)'이라는 신문기사를 남겼다. 김개남은 전주 감영에서 처형되어 머리만 올라왔는데 안교선, 성재식, 최재호 세 두령의 버려진 몸통에 대한 비숍의 목격담이 있다. 이 밖에 서소문 밖 처형과 효시에 대한 역사 기록은 많다. 1618년에 허균이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었다. 1811년에 평안도 지역에서 난을 일으켰던 홍경래와 민란의 주동자들이 처형되었고, 임오년(壬午年, 1882)에는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기 위해 난을 일으켰던 훈련도감의 군병들이 일어났다가 서소문 밖에 효시되었다. 갑신년(甲申年, 1884)에 정치 개혁을 위해 정변을 일으켰던 선각자들의 머리가 서소문 밖에 내걸렸다. 일본이 한일합방을 위해 강제로 군대를 해산하자 이에 반발한 조선군과 일본군 사이에 서소문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수많은 조선군이 희생되었고, 시체가 서소문 밖 만초천 변에 한 달 동안 방치되었다.

이렇게, 서소문 밖은 조선 후기에 사회 변혁을 위해 저항한 민중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적인 장소다.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민중 수난사는 후손들을 일깨우는 소중한 문화 역사적인 유산이다. 서소문 역사공원은 보편타당한 역사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계획되어, 역사의 총체적인 의미가 담긴 명실상부한 '민중의 광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약력

청주대학교 국문학과 동 대학원 박사

1983년 충청일보 신춘문에 당선

1996년 한국일보 광복50주년기념 1억원 장편공모 (흰옷 이야기) 당선, 소설가로 활동

현 명지전문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저서

장편소설

『어둠의 세월』 상·하 (도서출판 마루, 1993), 『흰옷이야기』①-③ (한국문원, 1998),

『동트는 산맥』①-⑦ (신인간사, 2000), 『조깅된 정전』(화남, 2011) 『옷방데기』(모시는사람들, 2014)

기타저서

『소설창작 여행 떠나기』(모시는사람들, 2013), 『소설창작의 길라잡이』, (모시는사람들, 2010),

『동학기행1』(모시는사람들, 2013)

채길순 (명지전문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 본문에 실린 외부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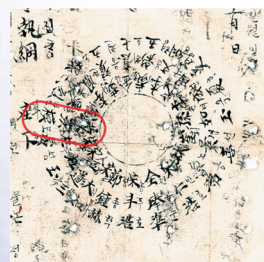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사발통문 거사계획에 참여하다

참여자 황흥모의 증손
황창호



Q 황창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황흥모의 증손 황창호입니다. 현재 부안군청 재무과에 소속되어있으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라북도본부 부안군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Q 현재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고 계신 것도 증조부님의 정신을 이어 받으신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맥이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증조부님의 핏줄을 이어받고 태어나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고 말이죠. 그러나 증조부님께서 하셨던 일은 한 마디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 제가 하는 일은 아주 미비한 것입니다.



사발통문 중 황흥모 서명

Q 황흥모 증조부님에 대해 어떤 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까?
지금은 이장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증조부님의 산소가 사발통문 작성지가 있는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성묘를 갈 때마다 집안 어른들이 동학혁명모의탑에 꼭 들러서 네 증조부께서 사발통문에 서명하시고 동

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탑에 새겨진 사발통문 서명부분을 보면 실제로 증조부님의 이름을 확인 할 수 있었기에 어린 마음에도 내심 뿌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황흥모 증조부께서는 어떻게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단순한 난으로 취급되었기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고 사발통문에 서명하셨다는 내용 이상은 누구도 알려고도, 누구에게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타깝게도 증조부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현재 증조부님의 활동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은 예전 보훈처에서 발행했던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자료에는 사발통문에 서명했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20인의 활동상황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증조부께서 백산대회에 중군장으로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해당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현재는 그것이 어떤 자료였는지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Q 증조부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1894년 당시 동학농민혁명 재봉기에 참여하셔서 11월에 한양을 향해 진군하시던 중 체포되었으며,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보훈처에서 발행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들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Q 증조부님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로 인해 집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조부께서 장가를 들고 부친의 출산을 앞둔 시기에 증조부께서 세상을 떠신 충격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은 역

적의 후손이나 마찬가지로였으니 주변의 멸시나 차별 등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조모께서 홀로되신 후 현재의 친가에서 부안으로 조모님을 모셔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안 주산면 종산마을에서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조사에 대해 어떻게 접하고 신청하게 되셨습니까?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만 알고 지내오던 중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참여자 유족 등록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모르고 지내던 중 정읍에서 전화가 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이 맞는지 물어보시고 등록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증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 저만 신청했었는데, 이후에는 고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저의 아래 세대까지 모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Q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후손으로서 증조부께서 당시 사발통문 서명자 20인중에 한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당시에도 우리 증조부께서 정의로운 사고를 가지고 사셨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현시대에도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단에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이 더 활성화 되고,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 기념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이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라북도에서, 넓게는 전국에서 일어난 혁명이었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전 국가적으로 크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의 명물,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 관장 이윤영

Q 이윤영 관장님 안녕하세요?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전임 관장이셨던 표영삼 선생님의 뒤를 이어 4년 전인 2011년부터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 관장을 맡고 있는 이윤영입니다.

Q 관장님께서 동학, 동학농민혁명과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A 저는 김제 원평의 전통유학가문에서 태어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 원불교 법당에 따라다니기도 했고 저의 고향이 증산도의 성지였기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를 접하는 등 어려서부터 여러 종교를 경험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이후 한동안 방황기를 거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종교에 귀의해 불

것을 제의받고 천도교(동학)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천도교(동학)에 입도한 후 부안의 박기중 중법사님에게 수련을 받았으며 이후 표영삼 선생님을 찾아가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었던 1994년에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동단협(동학농민혁명관련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며 교류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Q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은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A 동학농민혁명이 100주년을 맞이하기 1년 전인 1993년, 천도교(동학)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동시에 교도들의 성금을 모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천도교(동학)에서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교당과 수운회관 근처에 동학혁명기념관 설립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기초공사를 하던 중 지하수맥문제로 기존건물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아 공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천도교(동학)에서는 기념관을 설립할 새로운 후보지역을 물색했고 당시 전주교구로 활용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땅을 매입해 두었던 한옥마을과 우금티 전적지, 그리고 황토현 전적지가 후보지로 거론되었습니다. 이 중 논의를 통해 현재의 위치인 한옥마을에 설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1994년 말 공사가 시작되어 1995년 5월 31일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주 입성일에 맞춰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이 개관되었습니다.

Q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의 전시품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A 현재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은 5개의 주제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 제1실은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천도교의 창도에서부터 교조신원운동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당시 실생활 유물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2실은 '혁명의 불꽃'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우금티 전투, 최후의 항쟁을 거쳐 지도자들의 피체와 사형되는 과정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 기념관에 전시된 내용 중 약간 독특한 점은 동학농민혁명이 마무리된 시점을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 교주님이 사형된 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시형 교주님께서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로서 청산기포 당시 직접 동학농민군의 출병을 명령하기도 하셨으며, 체포이후에는 다른 지도자



분들과 같은 죄목을 선고 받고 사형당하셨습니다. 즉 최시형 교주님을 마지막으로 처형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로 보고 그분이 사형 당하심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실의 주제는 '좌절은 넘어'로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히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져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동학) 소속이 15명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도교(동학) 소속 15명 중 7명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었던 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이후 3.1운동, 항일의병활동으로 꾸준히 그 정신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천도교(동학)에서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개벽, 어린이지 등을 꾸준히 발행하여 문화운동을 주도한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실은 '희망의 꿈들'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남북 분단저지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항쟁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사 전체를 요약한 연표를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제5실은 영상실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출구 앞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분의 명단을 전시해두었습니다. 아직 역사에 문혀 밝혀지지 부분이 많지만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동학농민혁명과 근현대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Q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을 개장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기념관이 처음 건립되었을 당시만 해도 전주한옥마을은 도심 속의 오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방문객도 거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문화시설물을 찾아 홍보하는 프로그램에서 이곳을 찾아와 촬영을 하고 싶다고 부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한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말에 2~3천 명 연휴에는 5~6천 명 가량의 방문객 분들이 이곳을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석가탄신일이 끼어있던 연휴 중에는 기념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하루 방문객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신 것이 앞으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Q 그간 기념관을 운영해보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무엇을 꼽고 싶으십니까?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꼽고 싶습니다. 학예사를 고용할 비용도 없어서 제가 관장과 동시에 학예사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문위원회 등 꼭 필요한 회의도 비용이 부담되어 자주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시자료의 구입이 어렵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Q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은 지난해 여름에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관되었는데, 당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 기념관은 처음 부지를 구입할 당시부터 천도교(동학) 전주교구로 활용할 계획이었기에 리모델링 전까지는 1층을 교구로, 2층을 기념관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2층에 위치한 기념관은 접근성도 부족했을 뿐더러, 1층만 둘러보고 가시는 방문객 분들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층의 교구를 2층으로 올리고 기념관을 1층으로 옮겼으며, 전시물도 자세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활동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후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에 대한 완벽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의 보훈혜택에 확실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념재단이 전국 기념사업단체에 대한 중심 본부로서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약 30년간 여러모로 연구해왔던 동학, 동학농민혁명에 내용을 천도교(동학) 기관지인 신인간에 '동학비사'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할 것이며 또한 책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역사에 의거해 연재 및 출판해볼 계획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기드문 ‘평민지도자’ 차치구(車致九)

성균관대학교 교수 배항섭

오지영의 『동학사』에 따르면 차치구는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 당시 손여옥, 임정학 등과 함께 정읍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군 지도자였다. 농민군 지도자들 가운데는 중농 또는 향반 출신들이 많았지만, 차치구는 보기 드문 평민 출신이었다. 차치구는 정읍 입암면 마석리에서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한 데다 신분도 평민이어서 서당에도 다니지 못했지만, 키가 7척의 거구인 데다 기개가 남달라 장수감으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는 스무 살 안팎에 이웃마을 대흥리로 옮겨가 살았는데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진다.

대흥리와 이웃마을인 지선동에 임감역(監役은 벼슬 이름)이라는 천석꾼 부호가 살고 있었다. 전라도 남쪽 지방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임감역은 그 땅 대부분을 소작을 주었는데, 작인 가운데 양반 꼬트머리인 소작인들은 위세를 빌려 도조를 내지 않았다.

임감역은 청년 차치구를 불러 “도조를 받아 마음대로 쓰라”고 일렀다. 차치구는 그곳에 가서 소작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중 힘센 듯한 두 사람을 제압한 후 “양반인 주제에 도조를 안내는 도둑놈 짓을 하느냐”고 호통을 치고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해서 도조 수백 섬을 거두고 나서는 소작인들에게 술과 고기를 잘 대접하고 말했다. “갑자기 도조를 내느라 무리했을 터이니 3분의 2는 도로 가져가시오. 다음부터 도조는 꼬박꼬박 내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동네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다(손자 용남의 증언)

이 일화는 그의 기질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언젠가 전봉준이 대흥리로 차치구를 찾아와 함께 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차치구는 “우리 군의 수령을 내쫓는 일은 할 수 있으나 다른 곳에 가서 거사하면 역적이 된다”고 거절했다 한다. 이에 전봉준이 “나라를 위해 일어나야 한다”고 끈질기게 권유하자 전봉준을 따라 고부 봉기에도 참여했고, 이어 전주 입성에도 앞

장섰으며, 전봉준의 후군(後軍)대장이란 호칭을 얻었다고 한다. 관군측 기록에는 그의 활동상에 대해 “대장기와 숙정패(肅靜牌)를 세우고 포군 4~5백여 명을 거

느리고서 좌우도를 두루 다니면서 관장을 능욕하고 이민을 노략질한 것이 끝간 데가 없었다”(이두황의 「양호우선봉일기」)고 했다. 실제로 집강소 시기에 흥덕현감 윤석진이 농민군 집강소에 협조하지 않고 그곳 농민군 두령 고영숙을 잡아 가두자 차치구가 이끄는 농민군은 흥덕 관아를 들이쳐서 고영숙을 구하고 윤석진을 혼낸 적이 있다.

정읍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차치구의 이러한 활약상은 지역 유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1894년 11월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고 패배를 거듭하자 곳곳에서 수성군과 민보군이 일어났는데, 정읍·흥덕·고창지방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지방의 토호로 악명이 높은 강영중과 현감 벼슬을 샀던 은수룡 등은 이른바 ‘창의문’을 돌리고 농민군 탄압에 나섰다. 그들이 남긴 『거의록』에 따르면 “지금 도둑의 형세는 갈수록 뻗어가고 심지어 수령을 죽이기도 하며 군현을 함락하고 성지(城池)를 점거하기도 한다. 하물며 동학의 도둑 차치구는 관아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삼강오륜을 깎그리 저버리고 있으니 일이 매우 절박하다”고 하였다. 그는 2차 봉기 때에도 많은 농민군을 이끌고 공주와 논산전투에도 참전했고 이어 전봉준의 주력군이 원평·태인전투를 벌일 적에도 일선 행동대로 활약했다. 전봉준과 끝까지 행동을 같이한 것이다. 전봉준이 태인전투를 끝으로 부하 10여 명과 함께 순창 피로리에 몸을 숨길 때도 차치구는 전봉준과 동행했는데 그의 어린 아들 경석도 데리고 다녔다 한다.

차치구는 피로리에서 전봉준과 헤어져 용케 고향땅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마석의 뒷산인 국사봉 토굴에서 숨어 지냈으나 결국 마을 사람의 고발로 체포되었다. 흥덕 수성군의 토포유사인 김재구가 군사를 이끌고 이 토굴을 덮치자 차치구는 두려움 하나 없는 몸짓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칼 한 자루와 담뱃대 하나가 들려 있을 뿐이었다. 수성군들이 그를 묶으려 하자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겠다. 이대로 같이 가자”고 호통쳤다 한다.

현감 윤석진은 그를 닦달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적을 심문하고 동조자를 불라고 회유와 고문을 섞어 몰아쳤다. 차치구는 “네 소행으로 보아 죽이고 싶었는데 살려 주었더니 끝내 너에게 당하는구나”라고 소리치며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윤석진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형되고 불에 태워졌다. 후손들은 차치구의 제사를 12월 29일로 잡아 지내고 있다. 사형장에 내팽개쳐져 있던 그의 사체는 어린 아들 경석(京石)이 밤에 몰래 수습, 30리를 달려 선산 아래에 가매장했다고 한다. 이 차치구의 아들이 바로 1910~30년대 크게 교세를 떨친 보천교의 교주가 된 차경석이다.



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3

전주 객사

객사(客舍)란 객관(客館)이라고도 불렸으며, 고려·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했던 관사(館舍)를 뜻한다. 고려까지는 외국 사신이 방문했을 때 묵거나 연회를 갖는 것이 객사의 주된 기능이었으나, 조선시대에는 객사에 위패를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에 궁궐을 향해 예를 올리기도 하고 나라에 경사나 국상 등에는 관민이 모여 의식을 거행했으며, 새로 도입한 관리가 가장 먼저 배례하며, 왕명을 받은 신하가 머물면서 교지를 전하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객사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가 주재하는 곳이면 거의 빠짐없이 지어져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은 드물며 그중 보물로 지정된

것은 전주객사(보물 제583호)와 여수 진남관(보물 제324호) 둘뿐이다.

전주객사의 창건시기는 기록이 없지만 성종 2년(1471년) 전주사고를 창건하고 남은 재목으로 서익헌을 동익헌과 같은 규모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주관과 그 좌우에 동익헌·서익헌·맹청·무신사 등 건물이 있었으나, 1914년 북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관통도로의 확장공사로 좌측의 동익이 철거되고 현재는 주관과 서익만 남게 되었다. 해방되면서 서쪽광장이 경찰학교로 쓰였으며 서익 건물 바깥 밑까지는 사유지로 매각되어 고층건물이 들어서기도 했다. 북쪽의 넓은 공터도 주관 처마 밑까지 개인에게 매각되어 체신청 건물이 세워지는 등 우

여곡절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추녀 끝을 잘라내어 원형이 훼손되기도 했다.

전주객사는 풍남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라감영(구 도청)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닌 문화재다. 주관 정면에는 ‘풍패지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풍패란 한나라 고조의 고향 지명으로 왕조의 본향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전주가 조선왕조를 개창한 전주 이씨의 본향이기에 이를 본떠 전주를 ‘풍패지향’이라고 부르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객사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에 직접 명시된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곳 선화당에 동학농민군 전라좌우도 대도소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미뤄보아 적지 않은 관계를 가졌던 곳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실된 선화당의 복원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안내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두황의 묘와 묘비

이두황은 서울의 상인출신으로 가난했다. 그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무과에 급제해 여러 관직을 지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양호초토영에 배정되어 초토사 홍계훈의 휘하의 대관으로 농민군 진압을 위해 전라도로 내려갔다. 1894년 7월에는 장위영 참령관, 8월에는 장위영 부영관으로 승진했고, 9월에는 죽산부사에 겸임 발령되었으며 10월에는 죽산부사겸 양호도순무영우선봉이 되어 농민군 진압에 앞장섰다.

재봉기 당시에는 공주를 향해 내려가던 중 목천 세성산에 주둔하고 있던 농민군을 격파했으며, 이후 해미, 흥성 등 내포지역에서 농민군을 진압했다. 이두황은 공주 우금터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여기에서 패배해 후퇴하던 농민군을 공격해 진압하기도 했다.

1895년 10월에는 훈련대 제2대 대대장으로 재임 중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다. 체포령이 내려지자 1897년 1월에 아들과 함께 부산으로 도주해 일본으로 망명했다.

망명한 10여 년 동안 일본열도를 여행하다 1907년 특별사면 되어 귀국했다. 친일파를 확보하려는 이토 히로부미의 배려로 귀국한 해에 중추원부찬의가 되었으며 1908년 1월에는 전라북도의 관찰사가 되었고, 같은 해 2월에는 전라북도 재판소판사를 겸임했다. 이후 전라북도 장관으로 임명받아 1916년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다.

전주 기린봉에 위치한 기린사 입구에 위치한 이두황의 무

덤은 2m가 넘는 묘비가 함께 세워져있으며, 묘비의 내용 중 후손이나 친일관련자들의 이름은 삭제되어있다. 묘비에 친일파라는 낙서 등 일부 훼손되어있으나 대체적으로 잘 보존되어있다.

초록바위

초록바위는 완산칠봉에서 동북 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전주천변에 자리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초록바위는 깎아지른 절벽이었으며,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있었고 빛깔이 푸르스름해 초록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죄인을 처형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그 중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김개남 장군이 참형을 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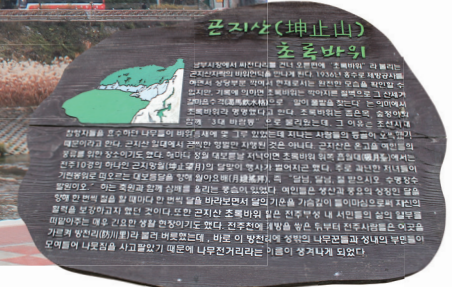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이 공주에서 우금티 전투를 치를 무렵 김개남 장군은 부대를 이끌고 청주성 일대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과 맞서 싸웠으나 패배했고 충청도 연산 일대에서 전봉준 장군과 합류해 전라도 쪽으로 후퇴했다. 김개남 장군은 전주까지 전봉준 장군과 동행했으나 전주에서부터는 남원방면으로 퇴각했다. 그는 12월 1일 태인 산내면 중송리에 매부의 집에 피신해 있던 중 옛 친구인 임병찬의 밀고로 인해 관군에게 체포되었다. 체포된 김개남 장군은 전주로 압송되어 서울로 이송되어야 했으나 전라감사 이도계가 동학농민군들이 김개남 장군을 구하러 올 것을 두려워해 임의로 초록바위에서 처형해버렸다. 처형된 날은 1894년 12월 13일로 김개남 장군의 나이는 42세였다. 김개남 장군의 머리는 서울로 보내져 서소문 밖에 3일간 효시되었으며 남은 시신은 남원 일대의 양반 토호들이 몰려들어 분풀이에 이용했다고 하니 강경파였던 김개남 장군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이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초록바위는 1936년 제방공사를 하면서 상당부분 깎여나간 상태다. 바로 아래의 도로변에는 초록바위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이곳이 김개남 장군이 처형당한 곳임이 언급하고 있다.

옛날에는 주관과 양 익헌은 물론 매월당, 청연당 등 부속건물이 들어서고 뒤뜰에는 진남루라는 누각이 있었으며 삼문(三門) 형식의 정문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주관과 서익헌, 1999년 말 다시 복원한 동익헌, 그리고 수직사



이두황의 묘와 묘비



초록바위

만 보일 뿐이다.

주관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단층건물이다. 주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편액이다. ‘豐沛之館’(풍패지관)이라고 쓴 글씨가 보통 큰 게 아니어서 한글자의 키가 1m를 넘으니, 옆으로는 칸살 하나를 다 차지하고 위로는 창방에서 서까래 끝동까지를 가득 매웠다. 담긴 뜻은 이미 풍남문에서 보았듯이 ‘풍패향 전주의 객관’이 되겠다. 편액이 이 정도니 집 또한 거기에 걸맞게 높직하고 큼지막하다.

장대석으로 두른 외별대 기단이 야트막하다. 그 위에 덩벙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이 환칠하게 길 뿐더러 칸살 또한 아주 넓어 비록 3칸집이지만 풍패향의 객사답게 당당함을 자랑한다. 기둥 위로는 창방을 건너지르고 주심(柱心)에만 공포를 짜올렸다. 주심포집이다. 주두 위에 짜맞춘 공포는 도리 방향으로는 주심도리를 받는 침차와 외목도리를 받는 행공침차에 모두 소침차와 대침차를 겹쳐 올렸으며, 보 방향으로는 쇠서가 날카로운 살미침차를 3단으로 두었다. 침차 아랫부분이 모두 굴곡이 많게 조각되어 꽤나 장식적인 모습이다. 주심포 양식의 말기적인 수법으로 보인다. 정면에는 칸마다 사분합문을 달았으며, 그 위로는 흡사 홍살문처럼 살대를 촘촘히 꽂아 독특

한 모양새를 보인다. 분합문은 띠살문인데, 기둥이 높다보니 문짝 또한 길쭉하여 시원스러우면서도 은근한 권위가 느껴진다.

서익헌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주심포 건물이다. 지붕은 독특하여 주관과 맞닿은 동쪽은 맞배, 반대쪽 서편은 팔작지붕이다. 두 건물을 바짝 붙여 지을 때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인 동시에 동익헌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주관과 연결된 전체가 팔작지붕의 장중한 단일건물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다. 부분부분을 구성하는 수법은 대개 주관과 흡사하다. 하지만 공포의 짜임은 약간 달라서 주두 위의 침차나 행공침차 모두 침차를 하나씩만 쓰고 있으며, 살미침차 역시 2단으로 정리하여 주관보다 격을 낮추고 있다. 평면은 중앙의 3칸에 넓은 대청이 있고, 그 양쪽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방을 배치한 다음 앞쪽으로는 전체에 툇마루를 깔 형식이다. 가운데 대청을 툇마루보다 한 단 높게 만든 것이 눈에 띈다.

서익헌의 앞쪽에 있는 수직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단층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동쪽 2칸이 온돌방, 서쪽 1칸이 마루이며, 앞쪽의 반 칸은 툇마루를 낸 구조이다. 측면에서 보면 도리가 다섯 줄 걸린 5량가임을 알 수 있다. 도리는 단면이 네모진 납도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납도

리를 받치는 부재로 장여만을 썼을 뿐 다른 어떠한 부재도 첨가하지 않은 이른바 민도리집이다. 박공판은 폭이 좁아서까래를 채 가리지 못하고 있으며, 종보나 들보는 휘어지고 비틀린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필요최소한의 부재를 사용하여 집을 엮고 있음이 한눈에 드러난다. 어찌 보면 너무 궁색스럽지만 달리 생각하면 천연덕스럽다. 그래 그런지 수직사의 옆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도 마음도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진다.

보물 제583호. 주관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팔작지붕 건물. 본래 전주객사는 전주사교를 건축할 때 그 남은 재료로 1473년(성종 4)에 서익헌을 개축하였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보다 앞서 객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客舍靑靑柳色新’(객사청청유색신)이란 남의 나라 시구가 오래도록 우리네 입에 오르내린 데서 알 수 있듯이, ‘객사’하면 외로운 서정이 흐르고, 만나고 헤어짐이 이루어지며, 때로는 가연(佳緣)이 맺어지기도 하는 낭만적인 장소를 연상하게 된다. 그 말만으로도 길손의 가슴속에 따뜻한 등불이 켜지는 공간이 예전의 객사였는지도 모른다.



소화불량에는 소화제가 최고?

보통 성인들이 가장 자주 겪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소화불량이다. 이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사람도 많아 외래를 찾는 환자들 100명 가운데 3명이 소화불량을 호소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 소화불량은 다소 모호한 증상으로, 주로 배의 윗부분에서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통칭해 부른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위장 등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위장의 기능 이상과 더불어 위장 주변 소화기 계의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큰 기능성 소화불량이 많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소화불량이 있을 때에 소화제부터 먹어야 한다는 말은 그릇된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경우는 기능성 소화불량

소화불량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질환은 매우 많다. 흔히 알려진 원인이라면 위장 자체의 문제인 위염이나 소화성궤양을 비롯해 위식도역류, 질환, 간 및 췌장 또는 담도의 질환처럼 위장과 관련된 소화기 계통의 질환에서도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은 흔하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 흔히 받을 수 있는 위장 내시경 검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것은 소화성궤양, 위식도역류 질환 등의 순이다. 아주 드물지만 위암에서도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있어도 위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실제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즉 소화불량 증상이 있어도 위장 내시경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른 소화기 계통에서도 별다른 질병이 없을 때가 훨씬 많다. 조사마다 그 수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소화불량 증상만 있을 때에는 거의 70%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조직의 이상 등이 관찰되지 않으면서 소화불량 증상만 있으면 이를 기능성 혹은 비궤양성 소화불량으로 부른다. 정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혹은 여행 등으로 규칙적인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위장 내시경검사 필요할 때

과거보다는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가운데 하나가 위암이다. 또 여성들의 암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40살이 되면 위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위장내시경 혹은 위장조영술 검사를 추천하고 있다. 대부분은 위암이 40~45살 이후에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위장 안의 점막 정도만 침범한 아주 초기의 위암은 수술 뒤 거의 대부분 완치되기 때문에 이 검사는 꼭 챙길 필요가 있다. 다만 위장 내시경 검사의 경우 관을 위장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구토 등 불편함이 뒤따르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수면 내시경 검사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정 부담스럽다면 위장조영술 검사를 받는 것도 추천된다.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위장 내시경 검사에서는 위암과 같은 중병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위염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증상이 없고 조직 손상이 심하지 않다면 꼭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약 때문에 소화불량?

당뇨, 고혈압, 감기 등으로 이른바 '양약'을 먹으면 그 부작용으로 소화불량 혹은 속 쓰림 등이 나타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이 때문인지 2008년 건강보험의 통계 결과를 보면 동네 의원의 경우 감기 환자에게 소화제나 제산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무려 70%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혈압이나 당뇨, 감기 등에 쓰는 약은 위장의 점막에 손상을 주지 않고 소화불량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즉 소화제나 제산제 처방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기관지 확장제, 결핵약, 가벼운 신경안정제 등 수많은 약들도 위장 점막에 특별한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결국 약을 먹으면 위장을 손상시킨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불필요한 약을 많이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런 약과는 달리 항암제, 일부 항생제나 소염진통제 등은 위장 점막에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약을 먹는 사람들이 속쓰림, 소화불량 등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산제 등을 먹는 것도 필요하다.

소화불량의 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균, 치료해야 하나?

대부분의 소화불량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자주 생기지도 않는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안다면 우선 피해야 하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위장 등의 운동 기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또 되도록 약물보다는 생활습관이나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방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을 써야 하는데 이 역시 장기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흔히 위궤양 등의 한 요인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이 균에 대한 제균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일부에서는 치료를 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반대로 치료 효과도 낮을 뿐더러 치료 뒤 위식도역류 질환이 더 많아졌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이다.





01

재단 제5차 운영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제5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전차회의록 보고 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현황보고,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대회 추진현황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진현황보고에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운영위원들은 현재 재단의 중점적인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에 놓치는 부분 없이 세심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동학농민혁명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

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을 기념하여 동학농민혁명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동학농민혁명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함성!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동용 전시 판넬을 제작해 학교, 기관, 단체 등 원하는 곳에 전시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전시물은 2주간 전시가 가능하며 기념재단과 협의를 통해 전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전시는 4월 13일 정읍역을 시작으로 5월 15일부터 오송역, 6월 1일부터는 전주역에 전시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대여를 신청하는 곳에 전시할 예정이다. 대여 신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에서 할 수 있다.

02



0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상반기 기획전시 개막식

지난 5월 9일(토) 기념관 기획전시실 앞에서 '기증·기탁 유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군 이야기' 특별전 개막식이 열렸다. 이번 특별전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기증·기탁된 유물 중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유물들을 한데 모아 전시한 것이다. 전시물은 송택열 선생님이 기탁한 시발통문, 김동규 선생님이 기증한 순교약력, 이철규 선생님이 기증한 이춘선 교지, 황금고 선생님이 기탁한 황종모의 창, 곽사호 선생님이 기탁한 곽윤찬 영수증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행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대표들과 기증자 김동규 선생님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이번 특별전시가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 자세히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했으며, 전시유물의 기증·기탁자 분들께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전시는 올해 10월 30일(금)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04

재단 제6차 운영위원회

지난 5월 29일(금) 용산역 itx 4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제6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현황,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현황,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총사업비 증액방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부터 기존 운영위원들의 위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운영위원들이 참여했기에 신임 운영위원 위촉식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봉준 장군 순국 제120주기 추모제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전해철)에서는 지난 4월 24일(금) 전봉준 장군 단소에서 전봉준 장군 순국 제120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김생기 정읍시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갑상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을 추모하고 그 뜻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제는 김연 명창의 동학농민혁명가 공연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의 추모사와 전봉준 장군의 단소에 헌향과 헌화가 이어졌다.



제121주년 무장기포 기념제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무장기포기념제가 4월 25일(토) 무장읍성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박우정)와 무장읍성축제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의회의장, 김춘진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제는 출정사, 포고문 낭독,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선운사 미륵보살 비기탈취 및 무장읍성 무혈입성 재연, 무장기포기념식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중 이기화 전 고창문화원장이 제8회 녹두대상을 시상했다. 이기화씨는 전봉준장군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날 박우정 고창군수는 “자유와 평등, 자주를 가치를 내걸고,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만들어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식

지난 4월 26일(일) 장흥 석대들 전적지에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식이 열렸다. 지난 2012년 시공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14년에 완공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 배치를 거쳐 이날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기념관은 홍보영상실, 기획전시실, 체험전시실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되어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지역에서 활약했던 이방언 장군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영상과 전시물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석대들, 다시 일어서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개관식은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개관식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항일의병의 뿌리가 되었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의와 상생의 기상을 일깨워 주는 배움터가 될 것"이라 전했다.



백산봉기 기념대회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백산봉기 기념대회가 제59회 백산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축제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4일(금) 백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와 백산면체육회가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종규 부안군수, 김춘진 국회의원,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백산창의비에 헌화를 시작으로 백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군행렬, 예화무용단의 '다시 피어라 녹두꽃이여' 공연 이후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김원철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회장은 "올해 백산봉기 기념대회는 백산면민의날 축제와 통합해 그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이러한 단결아말로 동학농민혁명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 전했다.



제48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지난 5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제48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황토현전적지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동학농민혁명교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을 통해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시작되었으며 김생기 정읍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심보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우천규 정읍시의회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중 대하역사소설 '녹두장군'을 집필해 동학농민혁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것으로 평가받는 송기숙 전 전남대학교 교수가 제5회 동학농민혁명대상을 수상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구민사에서 갑오선열 위패 봉안례가 유족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으며, 전국농악경연대회와 조선세뱃대회를 비롯해 역사퀴즈페스티벌, 청소년토론대회,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공연, 그리고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펼쳐져 참여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121주년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기념식

제121주년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기념식이 지난 5월 11일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앞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대표 고윤지)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기념사에 이어 김생기 정읍시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우천규 정읍시의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후 폐정개혁안 낭독, 천덕송 합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의 과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자주적 민족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동북아를 평화의 광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동학농민혁명 방갈리 기포비 제막식

동학농민혁명태안유족회와 태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이 기포했던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이를 기념하는 동학농민혁명 기포비를 설립했다. 기포비는 상석과 좌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석 전면에는 동학농민혁명기포지라는 글귀를, 후면에는 방갈리 기포의 유래에 대한 설명문을 새겼다. 그리고 좌대의 전면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기포했던 당시를 표현한 그림을, 후면에는 인내천·사인여천이라는 글귀를 새겼다.

지난 5월 22일(금)에는 한상기 태안군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박남규 태안군의회의장, 박남수 천도교교령,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해 기포비 제막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문영식 동학농민혁명내포유족회장은 "오늘의 감격을 계기로 더욱 큰 용기와 긍지를 가지고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성 황룡전투 승전기념식

지난 5월 27일(수) 장성황룡 동학농민군승전기념공원에서 제121주년 장성 황룡전투 승전기념식이 열렸다.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추진위원회와 천도교 중앙총부, 장성군 농민회가 동시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이상식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의 내빈소개 이후, 동학농민군 12개조 폐정개혁안 낭독,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기념사, 정찬군 장성군 부군수의 환영사,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염원하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면, 온 국민들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해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 그러한 상황을 준비해 나아가 할 것"이라 언급했다.



제121주년 동학농민혁명군 전주입성 기념식

제121주년 동학농민혁명군 전주입성 기념식 및 동학사상 강연회가 지난 5월 31일(토)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 2층에서 열렸다. 동학혁명100주년기념관(관장 이윤영), 천도교청년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은 김승수 전주시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수봉전을 비롯해 주문 3회 병송, 동학행진곡 제창, 폐정개혁안 낭독 등의 식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백성을 귀히 여기는 뿌리 깊은 인간중심 민주주의 사상으로 근현대사에 우뚝 솟은 독보적인 가치"라 언급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신영우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1894~5년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동아시아의 정세'를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초청강연이 진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전주입성 121주년 기념대회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민)가 개최하는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1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5월 31일(토) 한옥마을 부채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대회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폐정 개혁안 낭독, '동학농민군 전주입성의 역사적 의의' 특강, 역사극 '녹두 전봉준'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이날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6월 초까지를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을 통해 전주의 위상과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6월 6일(토)에는 제11회 동학농민혁명 전국고교생 백일장이, 6월 7일(일)에는 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과 함께 동학혁명기념관 마당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와 사진들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다.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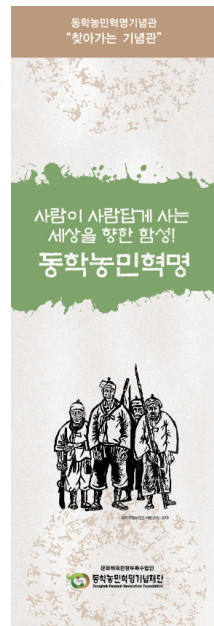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 '찾아가는 기념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함성!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 정읍역에서 '찾아가는 기념관'을 선보인다.

전시주제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함성! 동학농민혁명'으로 선정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에서부터 전개과정 등 전반적인 상황과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 등을 패널과 사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작업한 박홍규 작가의 판화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찾아가는 기념관'은 정읍역을 시작으로 전시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전시패널을 무상으로 대여해주어 전국 각지에 순회전시 할 예정이며,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 전시할 수 있도록 패널을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물 대여 안내

- 전시 주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함성! 동학농민혁명
- 전시 형태 : A0(841 x 1,189mm), 규격 패널 10개(엑스배너 및 포토존 별도)
- 전시 장소 : 전시물의 특성상 실내로 제한함
- 대여 기간 : 2주 이내(연장 시 협의)
- 유의 사항 : 전시 패널 및 이젤 등 전시 관련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파손 시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은 대여 기관에서 부담해야 함
- 문 의 처 : 063-536-189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관운영부)

※ 전시를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에서 대여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FAX (063-538-2893)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진 '녹두꽃' 독자원고 모집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포럼 회원들을 비롯한 국민과 소통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내 용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기,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방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나아갈 길 등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분 량 : A4용지 1 ~ 2장 가량(11포인트, 줄간격 180%)
- 보내실 곳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jiori@1894.or.kr
우편송부 또는 이메일 송부

※ 송부 시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법정기부금 기탁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법정기부금이란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서,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기관(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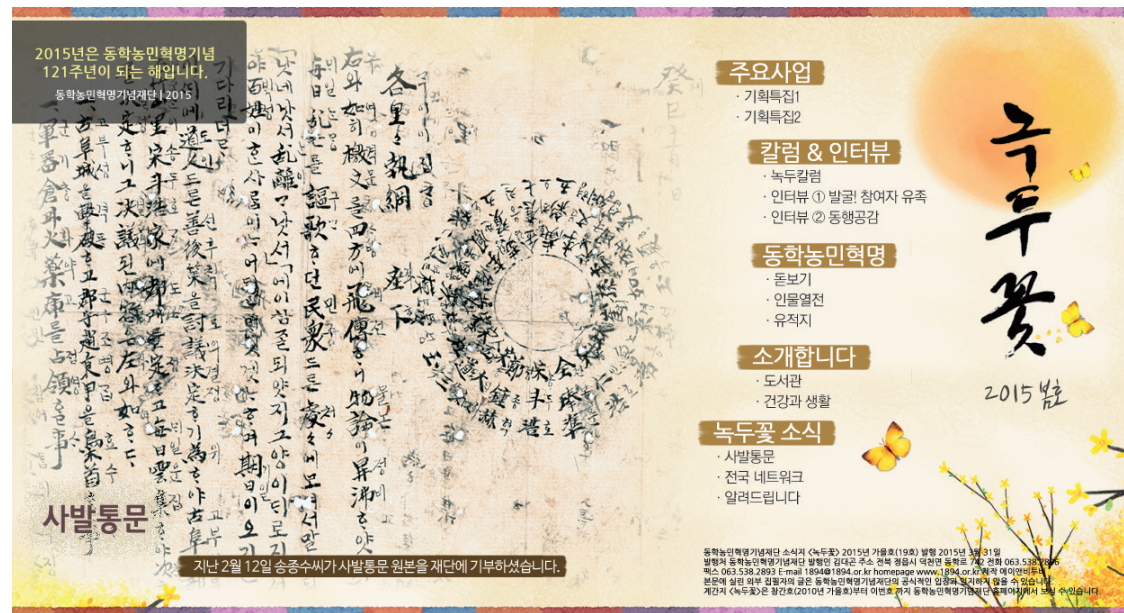
법정기부금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며, 감독관청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는 법정기부금을 통해 관련 기업이나 후원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법정기부금 기부자 손비인정

- 법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비인정
- 개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손비인정

웹진 '녹두꽃' 수신요청방법



계간으로 발행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웹진 '녹두꽃'은 수신요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djiori@1894.or.kr로 수신희망 이메일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 회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평등·개혁 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동학농민혁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해 쓰러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제와 오늘의 현상을 통해 내일을 알고자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통해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뜻있는 분은 '동학농민혁명 포럼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 동학농민혁명포럼 가입시 우대사항

-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개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 우선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전국기념대회 및 각종 행사 초대
- 동학농민혁명포럼 회원간의 발표회 및 토론회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간 서적, 각종 자료 등 무료 제공 등

※ 가입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상단 [포럼회원가입] 클릭

※ 문의 : 기념사업부 최경훈(063-538-2894, oasis@1894.or.kr)



사람, 다시 하늘이 된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5. SUMMER

구름꽃

2015 여름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증유물展

기증·기탁 유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군

人物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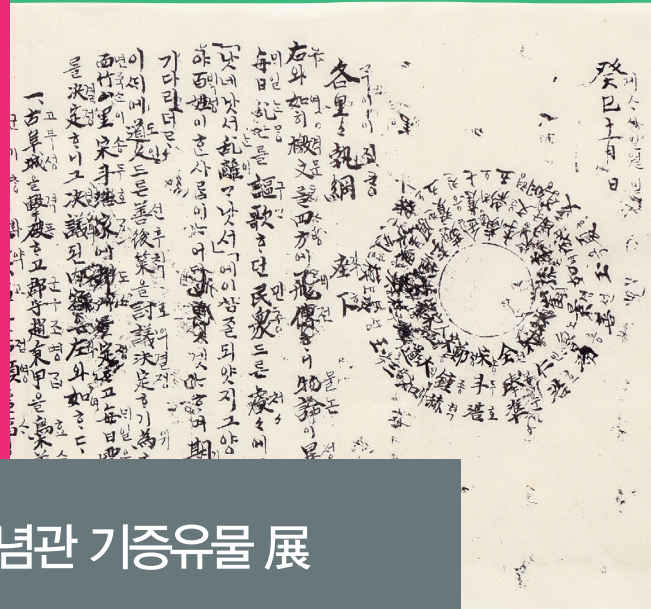
2015. 5. 9토

~ 10.31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